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립26주년 고객만족 최우선 기업 동양종합건설(주)



동양종합건설(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
T 053-562-4400 F 053-552-9222

푸른신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제1,141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코 SP-LEX
MIGWANGSPOLEX
헬스 / 스퀘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키골프: 053) 584-0775

헬스 연합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나무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 585-0100
대신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지면안내»

20주년 특집 '어머나'	03~04면
지역	05~09면
고령·성주	12~13면
지역사랑파트너	15면
종합	16~19면
기고	20~21면
교육	23~25면
문화	26~27면
건강	28~29면
운세·날씨	30면
퍼즐	31면

우리에게 ‘아파트 갑질’은 없다

일동미라주더파크 아파트 상생 선언
건강한 아파트문화의 새 지평 열다



정준호 입주자대표회장

지난 16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에서는 훈훈하면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아파트 입주민과 직원 상생을 위한 실천 약속 선언식이 열렸던 것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장 정준호(40) 씨. 작년 7월 회장으로 선출된 뒤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입주민이 직원에 대해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율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규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대구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광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간에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아파트 동 대표들과 초안을 만들고 2주간 입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선언식을 열게 된 것이다. 원래는 지난 8월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연기된 기간 동안 입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민을 상대로 슬로건을 제작하여 현관마다 부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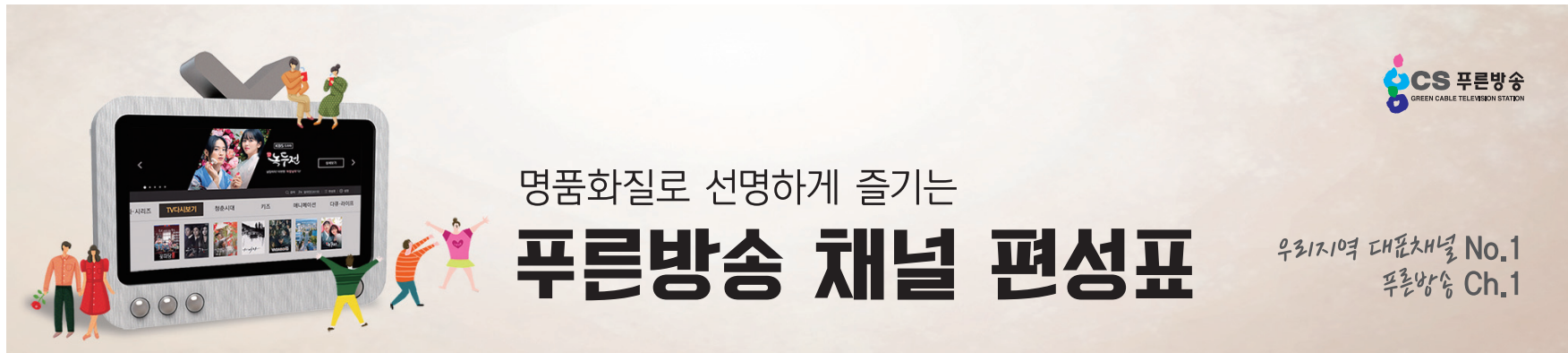
정준호 회장은 “오늘 선언을 계기로 인근 아파트, 나아가 대구의 아파트에는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조성에 오늘 협약이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희(65) 아파트 경비반장은 “입주민과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 친숙한 사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

냈다. 건강한 아파트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상생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직원은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입주민은 직원을 ‘내가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약 3년 된 아파트로 870세대가 살고 있다. 3,40대의 젊은 층이 많으며 ‘세 자녀도 다둥이 소리를 못 듣는다’ 할 정도로 아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번 선언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남은 것은 입주민과 직원의 실천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언은 일동미라주더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정식 기자





HD국민형방송 채널표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성파
6-2	EBS2	지성파
7-1	KBS2	지성파
8-1	CJ오쇼핑	홍소핑
9-1	KBS1	지성파
10-1	롯데홈쇼핑	홍소핑
11-1	MBC	지성파
12-1	GS SHOP	홍소핑
13-1	TBC/SBS	지성파
14-1	NS홈쇼핑	홍소핑
15-1	현대홈쇼핑	홍소핑
16-1	홈플러스	홍소핑
17-1	JTBC	종편
18-1	채널A	종편
19-1	TV조선	종편
20-1	MBN	종편
21-1	공영쇼핑	홍소핑
22-1	SBS CNBC	경제
23-1	연합뉴스TV	보도

번호	채널명	장르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6-1	MBC에브리원	오락
26-2	MBC ON	오락
27-1	Mnet	음악
27-2	채널DIA	오락
28-1	코미디TV	오락
29-1	XtvN	오락
30-1	스크린	영화
30-2	인디필름	영화
31-1	OCN	영화
32-1	OCN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라이트TV	오락
36-1	JTBC2	오락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37-2	채널이엠	오락
38-1	KBS JOY	오락
39-1	디원	오락
39-2	Fun TV	오락

번호	채널명	장르
40-1	SBS플러스	오락
41-1	드라맥스	드라마
42-1	KBS드라마	드라마
43-1	MBC드라마넷	드라마
44-1	JTBC골프	스포츠
45-1	SBS스포츠	스포츠
45-2	SBS골프	스포츠
46-1	KBSN Sports	스포츠
46-2	SPOTV	스포츠
47-1	MBC스포츠+	스포츠
48-1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49-1	FTV	취미
50-1	투니버스	키즈/만화
51-1	JEI재능TV	키즈/만화
52-1	챔프	키즈/만화
52-2	애니맥스	키즈/만화
53-1	애니박스	키즈/만화
54-1	O tvN	여성
54-2	OGN	게임
55-1	리얼TV	오락
56-1	채널자이낙	해외드라마
57-1	내셔널지오그래픽	해외다큐
58-1	SBS funE	오락

번호	채널명	장르
59-1	온스타일	여성
60-1	EDGE TV	오락
61-1	KBS W	여성
62-1	올리브	여성
63-1	아이넷	음악
64-1	이벤트TV	음악
65-1	GTV	여성
65-2	SBS MTV	음악
66-1	OCN스릴즈	영화
67-1	MBC M	음악
68-1	상생방송	종교
69-1	BTN불교TV	종교
70-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71-1	CTS가톨릭TV	종교
71-2	CBS	종교
72-1	한국직업방송	공익
73-1	북지TV	공익
74-1	사이언스TV	공익
95-1	OUN	공익
96-1	국회방송	공익
97-1	KTV	공익

※2020. 09. 14 기준

디지털케이블방송 채널표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0	케이블 TV VOD HD	가이드
E	1	푸른방송	지역채널
E	2	EBS2 HD	지성파
B	3	MBC에브리원 HD	오락
E	4	소핑엔터 HD	홍소핑
E	5	TBC/SBS HD	지성파
E	6	GS SHOP HD	홍소핑
E	7	KBS2 HD	지성파
E	8	CJ오쇼핑 HD	홍소핑
E	9	KBS1 HD	지성파
E	10	롯데홈쇼핑 HD	홍소핑
E	11	MBC HD	지성파
E	12	NS홈쇼핑 HD	홍소핑
E	13	현대홈쇼핑 HD	홍소핑
E	14	JTBC HD	종편
E	15	EBS HD	지성파
E	16	MBN HD	종편
E	17	홈플러스 HD	홍소핑
E	18	채널A HD	종편
E	19	TV조선 HD	종편
E	20	tvN HD	오락
E	21	공영쇼핑 HD	홍소핑
E	22	신세계쇼핑 HD	홍소핑
E	23	연합뉴스TV HD	보도
E	24	YTN HD	보도
E	25	OCN HD	영화
E	26	XtvN HD	오락
E	27	Mnet HD	음악
E	28	드라맥스 HD	드라마
E	29	E채널 HD	오락
E	30	OCN무비즈 HD	영화
유료	31	캐치온1 HD	영화
E	32	OCN스릴즈 HD	영화
E	33	O tvn HD	여성
E	34	스크린 HD	영화
E	35	채널DIA HD	오락
B	36	AXN HD	영화
B	37	Mplex HD	영화
E	39	SBS플러스 HD	오락
E	40	K소핑 HD	홍소핑
E	41	KBS드라마 HD	드라마
E	42	W소핑 HD	홍소핑
E	43	MBC드라마넷 HD	드라마
B	44	JTBC2 HD	오락
E	45	SK stoa HD	홍소핑
B	46	드라마큐브 HD	드라마
E	48	올리브 HD	여성
E	49	온스타일 HD	여성
B	50	JTBC4 HD	드라마
E	51	CNTV HD	드라마
E	52	드라마H HD	드라마
B	53	디원 HD	오락
B	54	티비조선2 HD	정보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B	55	채널A플러스 HD	정보
B	56	MBN플러스 HD	정보
B	57	CMCTV HD	오락
B	58	하이라이트TV HD	오락
B	59	SKY HD	드라마
B	60	KBS JOY HD	오락
B	61	씨네포 HD	영화
B	62	SBS funE HD	오락
E	63	K Star HD	오락
B	64	Fun TV HD	오락
B	65	GTV HD	여성
E	66	리얼TV HD	오락
E	67	OBS W HD	교양
E	68	EDGE TV HD	오락
B	69	KBS W HD	여성
E	70	트렌디 HD	여성
B	71	NGQ HD	오락
E	72	패션엔 HD	여성
E	73	MBC ON HD	오락
E	74	ONT HD	오락
E	75	ONCE HD	취미
유료	77	캐치온2 HD	영화
B	78	인디필름 HD	영화
B	79	데루바 HD	영화
B	80	SBS CNBC HD	경제
E	81	MTN HD	경제
B	83	토마토TV HD	경제
E	84	한국경제TV HD	경제
B	87	넷지오와일드 HD	다큐
E	88	넷지오파울 HD	다큐
E	89	내셔널지오그래픽 HD	다큐
B	90	다큐원 HD	다큐
B	91	OLIFE HD	취미
B	92	SBS FIL HD	오락
B	93	채널 뷰 HD	오락
B	94	FOX채널 HD	오락
B	96	채널이엠 HD	가이드
E	97	청춘시대TV HD	영화
E	98	씨네플러스 HD	영화
E	99	뉴트로TV HD	시니어
B	100	아이벳라이프 HD	시니어
유료	103	플레이보이TV HD	성인
유료	104	히트TV HD	성인
유료	105	미드나잇 HD	성인
유료	106	비키 HD	성인
B	108	큐브TV HD	음악
B	109	SBS MTV HD	음악
E	110	MBC M HD	음악
E	111	아이넷 HD	음악
E	112	이벤트TV HD	음악
E	113	GMTV	음악
E	114	KTV	공공
B	115	바둑TV HD	취미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B	116	K바둑 HD	취미
B	117	FTV HD	취미
B	118	Fishing TV HD	취미
P	119	발리어즈TV HD	취미
E	121	채널자이낙 HD	해외 드라마
E	122	중화TV HD	해외 드라마
B	123	채널J HD	해외 드라마
E	124	채널칭 HD	해외 드라마
E	125	텔레노벨라 HD	해외 드라마
B	127	HQ+ HD	오락
B	129	Life U HD	오락
B	130	히스토리 HD	오락
B	131	실버아이 HD	교양
P	132	예술TV Arte HD	교양
P	133	FX HD	교양
B	134	코미디TV	오락
P	135	ETN연예	오락
E	136	FOXlife HD	오락
E	137	TV아시아플러스 HD	오락
E	139	OGN HD	게임
E	140	STATV HD	게임
E	141	SBS스포츠 HD	스포츠
E	142	KBSN Sports HD	스포츠
E	143	MBC스포츠+ HD	스포츠
B	144	SBS골프 HD	스포츠
B	145	JTBC골프 HD	스포츠
B	146	JTBC GOLF&SPORTS HD	스포츠
E	147	스카이스포츠 HD	스포츠
B	148	IB Sports HD	스포츠
E	149	SPOTV HD	스포츠
E	150	SPOTV 2 HD	스포츠
E	151	SPOTV Golf&Health HD	스포츠
유료	152	SPOTV ON HD	스포츠
유료	153	SPOTV ON2 HD	스포츠
E	155	BTN불교TV HD	종교
E	156	BBS불교방송	종교
E	157	CBS HD	종교
E	158	CTS가톨릭TV HD	종교
P	159	CGN TV	종교
P	160	GOODTV	종교
E	16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B	162	상생방송	종교
P	163	C Channel	종교
P	167	동아TV	여성
E	168	육아방송	여성
B	169	이엑스애프 플러스	오락
E	170	Lifetime	오락
B	171	멜스메디	정보
유료	174	알콜리시즘 HD	키즈/교육
B	175	디즈니채널 HD	키즈/교육
E	176	투니버스 HD	키즈/만화
B	177	애니맥스	키즈/만화
B	178	Baby TV HD	키즈/만화

※E : 이코노미(112) / B : 베이직(180) / P : 프리미엄(195) / 유료 : 유료채널(10)

※채널상품 및 번호는 관계법령과 방송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부탁해!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엄마’는 문학·영화·음악·연극 등 많은 장르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 개인의 성장과 함께하는 존재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기억 속에서 존재하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행사한다.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는 단어일 수도, 그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엄마’는 여전히 큰 존재로 자리한다. 소설에서도 엄마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소설의 전개에 영향을 행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든 우리가 읽는 허구의 삶이든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어머니를 떠올린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고 소설 속의 ‘엄마’와 나의 ‘엄마’를 동일시하게 만들어 ‘엄마’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 소설로 유명하다.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겨울까지 ‘창작과 비평’에 연재될 때부터 주목받았고,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3개월 만에 판매부수 40만 부를 넘기더니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00만 부를 훌쩍 넘어서는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영문으로 번역해서도 초판 10만 부 발행에 이어, 출간 직후 아마존닷컴 전체 순위 20위권에 들었으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마’는 개인의 감정을 움직이는 대상인 듯하다.

실제로 ‘엄마를 부탁해’는 작가 신경숙 자신의 자서전적인 경험담이다. 동시에 우리가 흔히 접하고 목격할 수 있는 엄마의 일상이다. 작품 속 엄마는 많은 작품에서 다루는 헌신과 희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을 부탁해야 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제 실종동기를 찾으려 만드는 영향력 있는 존재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실종된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가족들은 엄마는 누구이며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엄마 뒤편의 인생을 인식하게 된다. ‘실종된 엄마’는 가족의 지지(또는 개인에 대한 인정)를 받지 못한 엄마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는가. 누구의 엄마라는 존재 가치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엄마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모든 것이 결코 엄마의 행복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엄마의 보살핌, 관심, 이해, 관용 등과 같은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당연한 듯이.

“나는 엄마처럼 못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더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며 엄마의 삶을 돌아본 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미 이렇게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사라진 엄마처럼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인정’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 이러니하게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실제 엄마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엄마의 딸, 큰아들, 남편, 애인, 시동생, 고모와 있었던 에피소드만 가득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가 봐왔던, 또는 지금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찾아낸다. 그리고는 내 엄마의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스럽게 엄마의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라도 엄마의 헌신과 희생의 숭고함 뒤에 숨어 있었던 엄마라는 삶의 고달픔에 격하게 공감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박은경(한국애드 대표)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유효성 -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 카탈로그형 - 소량만 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푸른신문 창간 20주년 기획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힘들 때도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키며 응원해 주셨지요.
늘 그 자리에 계셨기에 당연하다 생각했던 어머니.
정작 너무 편안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더 그리운 이름입니다.

푸른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자 어려울수록 더 생각나는
우리의 ‘어머니’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푸른신문과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푸른신문이
내 마음속의 ‘어머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나누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 어머니께 쓰는 편지도 좋고
엄마가 된 나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글 솜씨가 없다고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글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담아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주제 : 어머니와의 추억, 엄마로서의 느낌
-형식 : 시, 수필 또는 편지 등 자유 형식

▶보내실 곳

푸른신문 편집국 (053) 572-6000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게재: 푸른신문 1142호(20주년 기념호, 10. 29 일간)

** 접수되는 원고자 많을 경우 1142호 이후에도 게재합니다.

▶참고 사항

• 원고 분량은 최대 2,000자 이하(띄어쓰기 포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주소(기념품 발송용, 지면소개는洞까지) 및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기
고, 관련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053-572-6000



엄마는 ‘트랜스포머’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갑자기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당시 엄청 아파하시는 엄마를 보고 내 머리는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교차되었다. ‘아! 엄마가 빨리 나오셔야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내 일 로봇대란보이 2탄 봐야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엄마는 그야말로 강력한 체력으로 나의 걱정이 무색하게 회복속도를 올렸고, 나는 두 가지 걱정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특히 다음 날 영화를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아낸 것과 입장권을 구입할 돈의 확보는 큰 수확이었다. 그 때 내 눈 속의 엄마는 정말 변신로봇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회복하시지’ 나는 그 로봇을 등에 업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다.

엄마간의 시간이 지나 어느 집이나 늘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빗보정으로 실패를 맞보셨을 때는 강력한 멘탈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 곳과 앞으로 하실 일을 해결해 나가셨다. 그야말로 제갈량과 사마의를 능가하는 전략가의 모습과 전장을 휘몰아치는 관운장의 용맹한 모습이 아마 그 당시 엄마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덕분에 나는 여전히 철딱서니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때는 엄마의 활약상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엄마 몰래 교내 밴드를 하고(이 당시 밴드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선 ‘악의 축’이었다) 배구에 미쳐 공부에는 완전히 등한시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다녔다. 이 때 엄마는 수도승과 같았다. 늘 성당에서, 집에서 묵주*를 들고 내 기도를 하셨다.

*묵주:천주교에서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 불교의 염주와 유사한 모양.

덕분에 나는 고3, 2학기부터 그나마 정신줄을 부여잡고 안기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서 지역대학 중 문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때 그 당시의 엄마는

확실히 수도승의 인내를 가지셨던 것이 틀림없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내 나이 50이 넘었고 엄마의 호칭이 어머니로 바뀌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끊임없이 변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참으셨다. 아들들이 금전적으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해 잘 해 드리지도 못하고, 당시 역시 풍족하지도 못하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뭐든 주려고하시고 뭐든 우리 입맛을 맞추려고 하시고 어떡하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다. 이제 내 눈 속의 어머니는 거의 성불하신 수준이다. 아니 종교가 천주교이니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것 같다. 그야말로 자식들을 위해 매 상황 마다 ‘옵티머스 프라임’* 급의 변신의 연속이다.

*옵티머스 프라임: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정의를 위해 선 변신로봇들의 대장.

어머니! 이제 종교조차 다른 큰 놀이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그동안 못난 자식 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게요. 어머니! 술도 적게 마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제가 어머니 걱정을 덜어 드릴게요. 그러나 제발 건강하시고 저희들 걱정 좀 건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것들 모두가 숨에서 삭이고 저희한테 회생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발 이젠 좋은 건 못하시더라도 저희 걱정만이라도 제발 하지마세요. 그리고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어머니가 들어주셔야 제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점 하나 찌고 가는 찰나의 이생에서 어머니를 엄마, 어머니로 부를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도 제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아들이 되어 어머니가 걱정

아들이 보내는 작은 편지



김재준(달서구 갈발남로)

64년생 어머니는
키가 크고
은근히 흥이 많은 사람

예민한 아들에게 항상 조심하는
더 섬세한 사람

군대 갈 때 꼭 잡은 손에
온 힘을 불어 넣어준 사람

그냥 엄마라 부르고 싶은
항상 손이 따뜻한 엄마

88년생 아들은
키는 크지만
흥은 잘 못내는 아들이 되었고

예민하지만
엄마만큼 섬세한 사람이 되어가고

엄마가 주는 사랑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제 조금 이해하는 나이가 되서

2016년생 나같은 아들을 낳아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빠가 됐네요

사랑합니다.

안하시고 편히 사시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구남균(달성군 옥포읍)

대상 이정하 ‘꿈’ 성서연 ‘반려동물의 기다림’

제2회 달서구문화원 UCC공모전

달서구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달서구문화원 UCC공모전에서 이정하(초·중·고등부, 의성 탐리여중 1) ‘꿈’, 성서연(대학·일반부) ‘반려동물의 기다림’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달서구문화원 UCC공모전은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한 공모전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심사는 김종수(전 대구예술대 교수), 이용환(KBS대구방송총국 카메라감독), 김준영(푸른방송 방송본부장)이 맡았다. 이용환 감독은 심사평에서 “작품의 창의성, 주제의 부합성, 구성미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면서 “대상작인 ‘꿈’은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에 잠시 쉬어가며 미래의 꿈을 찾아가자는 내용으로 밝은 배경 음악과 효과적인 자막처리로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했다. 또 ‘반려동물의 기다림’은 반려동물의 시선으로 작품을 제작한 아이디어가 좋았고 짧은 시간 동안 간단명료한 구성에 세심한 화면처리로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한 수작이었다”고 평했다.

임상작은 달서구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될 예정이다.

초·중·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대학·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만 원이 주어진다. 코로나로 인해 시상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대상 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부: 금상 송은교(이겨내자)/은상 서인혜(평범한 날들을 기다려요), 김다인 외 3명(코로나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동상 김동욱(오늘은 농막 오는 날), 김지명 외 3명(2020)

▶대학·일반부: 금상 박창수(작은 소망)/은상 이제환(단지네 과수원), 김재동(달서구 행복승강장)/동상 윤용운(배려 캠페인), 권오석 외 3명(격정발아요, 희망 달서)

변정식 기자

국악가수 권미희氏 달서구 홍보대사 위촉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6일 구청장실에서 ‘대구의 중심, 새시대의 희망 달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구 출신 국악가수 권미희(35) 씨를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고 밝혔다.

달서구 홍보대사에 위촉된 권미희 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퓨전국악밴드 ‘스윗풍류’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 전국노래자랑 2009

상반기 결승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달서구 홍보대사는 SNS 활용해 구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이태훈 달서구청장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달서구청장(이태훈)이 14일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에서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으로 결성된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민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한다.

헌정회에 따르면 이태훈 구청장은 전국최초 결혼장려팀 신설로 결혼 진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민관협력 복지사업 활성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운영 등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달서형 희망나눔운동(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대구·경북 최초로 DT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안심방역서비스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대창공업(주) 053-580-2741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고졸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주)삼우농기 070-4892-5043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성우통상 053-243-9441	지재·구매 사무원 (화학·섬유·의료)	고졸 이상	연 2,200~2,400만 원 (상여 50%)
(주)나크로드 053-353-4002	경리 사무원(제조)	고졸 이상	연 2,200~2,400만 원
(주)산대엔비 053-425-5570	회계 사무원 (일반 기업체)	무관	월 230~250만 원
(주)에스비메이드 053-582-7058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화학·섬유·의료)	전문대졸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신창엔비 053-587-4800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무관	월 300만 원 이상
경희알미늄(주) 053-583-5055	공업기계 설치·장비원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주)우테크노 053-585-7128	기타 기계 조립·검사원	무관	월 200만 원 이상 (상여 300%)
신한정공(주) 053-719-6310	연삭기 및 연마(공작기) 조작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대은테크 053-598-4600	CNC 선반 조작원 (NC 선반 조작원)	무관	연 3,000~3,600만 원 (상여 100%)

■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식회사 평안 053-259-6666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0%)
대원초경합금 053-584-7713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300만 원 이상
(주)대영알엔티 053-355-393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영진원머리(주) 053-582-4545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720원 이상
니드테크 053-59-4681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00~250만 원
주식회사 제이엔테크 053-582-8990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고졸	시급 8590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원일 053-584-4463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전문대졸 이상	연 2,800~3,000만 원
(주)대영알엔티 053-355-3930	자게자 운전원	무관	연 3,000~3,600만 원
(주)삼화테크 053-581-6024	자게자 운전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주)한양레미콘 053-581-0678	건설자재 영업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상여 60%)
이인테크 053-719-0669	자동차부품 및 운송장비 기술영업원	무관	월 230~250만 원 (상여 100%)
단장 053-215-3570	쇼핑몰매체 준비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usebu

를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코로나 대응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수상의 영광을 60만 달서구민과 함께 하겠다”며 “민선 7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하반기 인기 동안 주요 역점·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사업성과 가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누이의 원망이 담긴 ‘소(沼) 바위 이야기’

가을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화원유원지에서 달성보 쪽으로 달리다 보면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화가 난 듯 툭 튀어나온 바위산이 눈에 들어온다. 바위산을 휘돌아 강물은 유유히 한없이 멀어져 간다. 애절한 누이의 한은 강물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간다.

달성군에서 가장 넓은 한밭들과 마갯들이 있는 옥포면 교항리에 옛 날부터 전해오는 슬픈 전설이 있다. 낙동강 변 부근은 몇 년 전만 해도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동네 전체가 물에 잠기곤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장마철이었으리라.

옛날 옛적에 옥포면 간경리에 한 부부와 시집갈 나이가 된 여동생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비가 몇 날 며칠 계속 내려 낙동

강 물은 자꾸만 불어났다. 언제 제방이 넘칠지 몰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만 눈과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흥수가 나면 아까운 곡식들이 떠내려갈까 싶어 세 사람은 여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한 논의 물부터 빼어내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긴 논의 물을 빼고 있을 때, 그만 세찬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강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자 태산 같은 흥수가 들판을 휩쓸며 세 사람에게 들이닥쳤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던 오빠는 강가에 튀어나온 바위를 재빨리 붙잡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와 여동생이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었다. 한 손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낙동강 속에서 바라본 소 바위 전경 (다음 블로그에서 발췌)

붙잡기는 역부족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먼저 잡히는 아내를 구하고 다시 손을 뻗어 여동생을 구하려고 했지만, 동생은 이미 강물에 휩쓸려 아래쪽으로 떠내려가고 말았다.

동생을 구하지 못한 오빠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동생을 구하지도 못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간 여동생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능청 휘청져 버랑 끝에
무정하다. 우리 오라버니
나도 죽어 저승 가서
남궁부터 섬기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내기를 하면서 불렀다고 하는데 이제는 잊혀져 가는 슬픈 전설이 됐다.

-이 바위를 소 바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흘러 내려 오던 물에 패어 물웅덩이가 생겼다고 해서 소 바위라 부른다고 한다.-

이윤영 객원기자

관광 분야 ‘만족’, 주차장 확충 ‘희망’

달성군 ‘2020 행정수요 및 군정발전방안 조사’
비슬산 케이블카 찬성 64.6%, 달성군 발전 가능성 78.7%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군정전반에 대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리서치 조사 기관을 통해 ‘2020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30일간) 만 18세 이상 군민들이 평가한 각 분야별 만족도는 관광 분야가 7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75.2점), 보건/복지 분야(74.6점), 지역개발 분야(74.0점), 경제/산업 분야(73.8점), 보육/교육 분야(73.6점), 일반행정 분야(73.4점), 안전/환경 분야(73.0점)로 분야별 만족도가 큰 편차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나 균형 있는 정책 추진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정주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정주의향 층이 80.4로 높게 조사 됐으며, 이주의향 층(18.5%) 보다 61.9% 더 높아 그간 추진되어 온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달성군의 자랑하고 싶은 명소로, 비슬산 참꽃군락지(51.8%), 송해공원(41.0%), 사문진주막촌과 낙동강생태탐방로(21.5%), 디아크(2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랑하고 싶은 명소가 단일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아 관광자원의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달성관광의 주축이 될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에 대한 질문에는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6%로 반대한다(18.6%)는 응답보다 46%가

높아, 군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달성군민들의 케이블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달성군의 주요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교통 불편 해소, 주차장 확충’ 응답이 높아 추후 정책 결

정 시 적극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향후 달성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78.7%가 발전 할 것이라고 답해 군민의 군정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문오 군수는 “행정수요와

군정발전방안 조사의 결과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나 가겠다”며 “특히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위한 정치후원금 모금 홍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정치후원금 모금 홍보활동에 나선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되며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때에 정당·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

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개인이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마련을 위한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힐체어도 유모차도 북편 ‘제로’

비슬산군립공원, 사문진주막촌 열린 관광지 선정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비슬산군립공원과 사문진주막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1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정비해 국민 누구나 관광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 ▲맞춤형 현장 상담 ▲화장실, 편의 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 교육사업 등을 위해 관광 지점별로 국비 2억 5천만 원씩 지원받는다. 열린 관광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엔 선정된 관광지 중 비슬산은 대구시 지정 1호 관



통약자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달성군 전역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관광정책 방안을 밝혔다.

변점식 기자

달성군 무공·보국수훈자 공적비 제막

달성군은 15일 현풍읍 충훈사에서 무공·보국수훈자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와, 군 복무기간 동안 나라에 헌신하여 보국훈

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무공·보국수훈자 공적비다. 공적비는 주 조형물과 명비, 건립취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비에는 무공수훈자 301명과 보국수훈자 75명, 총 376

명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해 구자학 군의회 의장,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장, 대구시지부 간부, 시의원, 기관단체장, 호헌단체장,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에 따라 참석인원을 100

명 이내로 제한했다. 김문오 군수는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길 희망한다. 이곳에 공적비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세에 길이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두류안전 벽화마을

대구의 벽화마을 하면 마비정 벽화마을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달서구 두류동에도 그에 못지않은 벽화마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곳은 1980년대-90년대의 삶을 연상케하는 두류안전 벽화마을이다.

두류안전 벽화마을은 두류1, 2동 옛 주택단지 구역으로 낙동초등학교와 보건고등학교 주변의 주택 단지를 말하며, 아직까지 재개발 되지않은 옛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예전에는 방치된 공·폐가가 많았고 좁고 긴 골목길 때문에 범죄의 우려성이 높은 침체된 동네였지만, 주민들의 주민자체위원회구성과 주민단체, 그리고 파출소장등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안전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안전마을 길은 14개의 테마길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내용이 다른 테마들로 연결 되어 있어 동그란 표식위에 숫자를 적어놓은 그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안전마을 전체 한 바퀴를 돌아보게 된다.

테마길 사이사이에는 쉼터 있는 쉼터 3곳과 능금공원도 위치해 있어 천천히 여유있게 안전마을을 감상 할수도 있다. 특히 3~10번 테마길은 벽화마을 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가자기한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구간으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벽화들에 연신 사진찍기에 정성이 없다.

벽화가 그려진 테마길에는 나뭇의 제목과 의미가 부여된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상징을 생각하며 벽화를 감상하면 또다른 즐거움이 될것이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며 좁은 골목을 누비고 다니다 보면 어릴적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옛 기억속의 골목길이 생각나 잠시나마 추억을 회상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된다. 또한 이곳 안전마을 주변으로는 두류공원과 이월드가 근접해 있어 온가족 가을 나들이 코스로 정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만 가는 옛 골목길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두류안전마을로 이 가을 추억 여행을 떠나가 보자.

김재훈 객원기자

달성습지와 대명 유수지 주차장 있어야...

가을이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평원이 있다. 성서공단 서쪽 끝에 있는 맹곡이 서식지가 그곳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습지 옆 독길 아래 조성된 대명유수지에 가을이면 역사가 넘실거린다.

평소에도 해질녘이면 멋진 노을이 지나가는 드라이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인데 가을이면 역사가 백발을 휘날리며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작년부터 역새들 사이로 데크가 설치되어 사진 찍으려는 연인이나 친구,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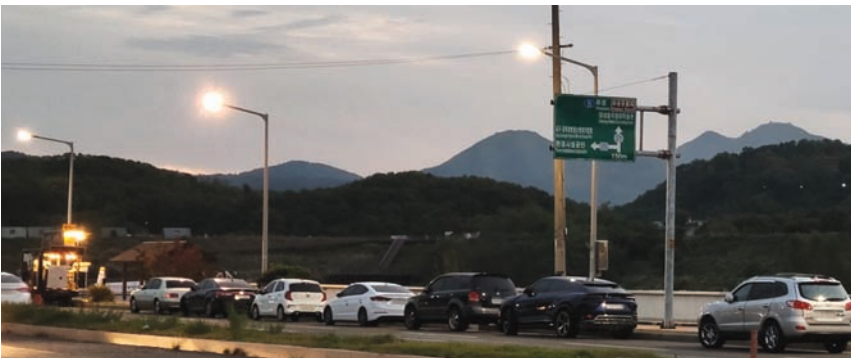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앞쪽은 대명유수지이고 낙동강 독길 뒤쪽 화원 방향은 달성습지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사람들

도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 아예 차선 하나가 주차 공간이 되어 버린다. 성서공단에서 월성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지만 대구 4차 순환 도로 공사로 인하여 없어진 차선이 있어 도로가 좁고 사고도 잦은 곳이다.

그런데, 데크 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왜 없는지 의문스럽다. 대구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대명유수지가 지리적으로는 달서구에 속하지만 맹곡이 보호구역인 관계로 대구시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대구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2018년 12월에 주차장이 착공되었고 2021년 1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주차장 규모는 300대 정도로 착공되었으나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대명유수지 앞 도로를 점령한 자동차들

찾는 시민들이 예상보다 많아져 대구시에서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또, 성서공단에서 화원유원지로 가는 월성교 건너기 전 오른쪽 길로 진입하는 차들이 많다. 들어왔던 길로 나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월성교 밑으로 돌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안내문이 없어 처음오는 사람은 당황하기 일

수다. 현수막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실내 공간보다는 오픈된 장소를 선호하고 있다. 주차장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아름다운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윤영 객원기자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내 손 안의 즐거움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궁산으로 ‘가을산행’ 떠나보자

녹음이 점차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색이 짙어져 가고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산행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왔다.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서둘러 가을 산행을 떠나가 보자.

크고 이름 있는 산이 아니라도 좋다. 굳이 무거운 등산 가방에 이것저것 챙길 필요도 없다. 가벼운 마음과 옷차림으로 불병하나만 들고 가을 산행을 즐겨보자.

달서구에 위치한 궁산. 250.9m의 나즈막한 산으로 금호강을 끼고 성서계명대학교 뒤편으로 이어져 있는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의 아기자기한 산이다.

궁산은 ‘산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등산로 입구는 크게 세 군데로 지하철 2호선 강창역에 위치해 있는 이락서당이나 유월 아파트를 경유해 올라가는 곳과,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을 통해 올라가는 곳 그리고 계명문화대 옆에 위치한 한화꿈에그린 아파트를 경유해 올라가는 곳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코스는 강창역 이락서당에서 시작해 계명문화대 보건관에서 마치는 코스와 반대로 계명문화대 보건관에서 시작해 강창역 이락서당에서 마치는 코스를 많이 선호한다. 산행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내외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산행이 될 것이다.

궁산 등산로는 높은 경사진 구간들은 통나무로 만든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어 힘들지 않게 계단 타기만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으며 능선

길 평지 구간은 평평하게 걷기 좋은 흙길로 다져 놓아 등산화를 신지 않아도 무난히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있다. 그리고 등산로 요소 3곳에는 등산객과 주민들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 산행 중간중간 몸을 풀어 주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 높지 않은 작은 산이지만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은 여느 유명한 산 못지않을 만큼 가슴이 확 트이는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다. 산 정상에서는 다사와 성서의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여타 유명한 큰 산들처럼 볼거리나 즐길 거리도 많지 않은 산이지만 궁산에는 지역 주민들만이 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healing point 이자 killing point가 있다. 그곳은 이락서당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하는 금호강변 절벽능선으로, 금호강변을 따라 약500m 정도 이어지는 능선길이다.

이 능선길은 걷다보면 여느 등산로와 똑같이 보이지만 옆으로 서너 발자국만 걸어가면 깎아지른 듯 높은 절벽위에 펼쳐지는 금호강의 유유했던 물결과 넓게 펼쳐져 한 눈에 들어오는 강 건너 다사면의 전경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화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기자 또한 절벽 능선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절벽 쪽으로 호기있게 다가섰지만 정말 까마득한 높이의 절벽 길이에 순간 멈췄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형용할 수 없는 풍경에 이내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어쩌면 동네 뒷산 정도로 치부될 궁산의 숨겨진 매력인 절벽능선길이 없었다면 기자 또한 과감히 기사를 쓰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절벽능선에서 받은 감동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한 여운으로 남아있다.

깊어져만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궁산 절벽능선길을 걸으며, 기자가 느꼈던 감동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추억을 쌓는 산행을 해보기를 권한다.

김재훈 객원기자

내년 주민참여예산 14억 3천만 원 확정

달서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5일 구청 총무관에서 열린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9건, 14억 3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사업소관부서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제안사업 설명 및 투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승인 순서로 진행됐다. 달서구는 사업 선정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주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365개의 제안 사업 중 사업부서 검토,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2차례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5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사전 온라인 주민투표(40%)

와 총회 당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투표(60%) 결과를 합산해 43개 사업(11억 2천만 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22개 동 지역회의에서 발의된 주민제안사업 36개 사업(3억 7백만 원)도 최종 승인해, 총 79개 사업 14억 3천만 원을 순수 구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위한 토론회

달서구의회(의장 윤권근)는 지난 13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길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는 환경부로부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달서구가 생태복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각 분야 전문가와 주

민들의 토론을 통하여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추진방향 ▶월곡지~도원지~진천천~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수변생태통로 조성을 통한 최적의 도시 자연환경 조성 방향 모색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대해 토론했으며, 토론회자료는 주민대표 11명(한반도숲사랑 달서구지회장 지근영, 부회장 정미란·고선희, 이사 도영규·이수철/와룡배움터대표 조은정, 운영위원 강신숙/자연보호 신당동협의회장 오명숙, 축전동협의회장 김순옥/달서구청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이



율리아/해피니스 파워플랜트 운영위원 이다경)과, 연애이피 김중현 대표, 영남고 조민호 교사, 달서구청 김재환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했다. 달서

구의회 윤권근 의장,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김인호·박왕규·배용식·안영란·조복희 의원도 참석했다. <자료제공:달서구의회>

성공의 열쇠!

푸른방송 TV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하나로 지역신문, SNS광고까지
모든 광고를 한번에 누리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이제, 푸른방송과 함께 실속있고 합리적으로 광고하세요.



우리지역 채널 No.1 푸른방송 Ch.1
053) 551-2000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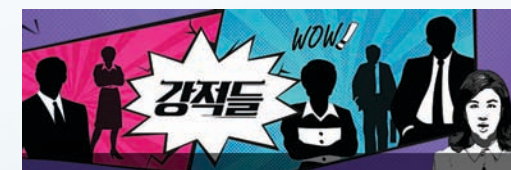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보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뿔났다.
고풍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회!

▶ JTBC 일요일 밤 7:40



모든 집에는 주인장도 모르는 물건들이 산다?
언젠가 쓸 거 같아서... 버려져나 아까워서...
팔자니 귀찮아서...?
당신의 집에 잠든 물건,
'유랑마کت'이 대신 팔아드립니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동네 주민과 직거래하며
이웃과의 훈훈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잠든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간이라도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 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 한 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물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 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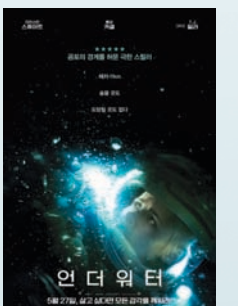
레미: 잠 없는 아이

인생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여행!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하던 레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알게 되는데...
과연, 레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언더워터

해저 11km,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깨어났다! 어두운 심해에 무언가 그들을 바짝 따라오고 있다. 불가사의한 포식자와 쫓고 쫓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간헐적인 대원들. 살아남기 위해선 남은 용기를 전부 쥐어 짜내야만 한다. 살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깨워라!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군민배움터’

고령군 시범운영 개시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코로나 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시대변화에 맞춰 온라인으로 각종 교양강좌를 제공하는 ‘군민배움터’를 10월부터 시범 운영 개시한다. ‘군민배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프라인 기반인 교육과정들이 운영중단 또는 축소되어 군민들의 학습욕구 충족의 기회가 줄어들자 그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운영 첫 해로, 평생교육분야에서 그림책콘서트, 중국어회화, 한국수어 총 3개의 과정을 운영하며, 각 과정은 10차시로 구성, 주기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군민배움터’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내 군민참여 메뉴에서 제공되며, PC, 모바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반복적으로 수강가능하다. 2021년에는 보건복지, 문화 예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용환 군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입된 ‘군민배움터’가 군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각종 강의들 시의 적절하게 공



군합으로써 군민들에게 배움의 연속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군민 누구나, 언제 든지 배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배려와 이해’의 통화연결음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지난 12일부터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통화연결음 안내를 시작하였다. ‘통화연결음 안내’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통화되기 전 나오는 연결음으로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민원인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상향별로 대응하고 통화 종료 후 음성안내 시스템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환 군수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 서로가 한 발 물러서며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제25차 가야문화권협의회 정례회의

제8기 협의회 의장 허성곤 김해시장 선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박용환 고령군수) 제25차 정례회의가 15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야문화권 11개 시군(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함천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각 5백만 원(총 55,000천 원)의 수해복구성금 지원에 관한 결정을 시작으로 2021년 협의회 행사 선정, 제8기 협의회의 의장 선출, 가야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 신설 중

양부처 건의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어서, 가야문화권 지역·역사·관광 등 상생발전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가야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옛 가야 세력권의 공동체 지역 대통합 실현의 시발점이 될 5대 핵심사업 및 11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연계 전략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과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 등의 실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시·군간 연계 전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8기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허성곤 김해시장은 “26개 시군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어 가야문화권 공동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가야문화권의 미래 발전적 의제 발굴과 공동 노력을 통해 시·군 발전은 물론 가야문화권 전체가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10개 시·군으로 발족한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경남 진주시가 25차 회의에 참석하여 영·호남 5개 광역시도 26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대 행정협의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국화향기로 코로나 이겨내요 다산면 ‘1♡대가야고령’ 추진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고령군(군수 박용환) 다산면 ‘1♡대가야고령’ 추진위원회와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일 다산면소재지 내 공한지 5개소(행정복합타운 내, 파출소-공영주차장, 다산배움터, 행복나눔센터 등)에 국화단지를 조성했다. 김상만 다산면 ‘1♡대가야고령’ (공동)추진위원장이자 주민자치위원장은 “이곳을 지나는 주민이 잠시나마 건강한 마음챙김 시간을 가지고,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 국화처럼 현재의 시련을 꿋꿋하



기화로 지친다산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소확행(小確幸)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다산면을 만드는데 앞장서주시 다산면 ‘1♡대가야고령’ 추진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니다

각종 재난지원금,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2020년 군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먼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7,315세대)를 발굴해 경북 도내에서 제일 먼저 재난긴급생활비(4,200백만 원)를 가구별로 차등 지급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2,058세대)에게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성주사랑상품권(1,217백만 원)으로 지급했으며, KF94 마스크를 세대당 60매씩(총 15만매 정도) 읍면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나누어 주었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긴급복지지원 TF팀은 군과 읍면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함으로

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수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정신적 고통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정부재난지원금은 관내 22,267가구에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11월중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 온라인(bokjiko.go.kr)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30.(금)
오프라인(읍·면사무소) 신청기간 2020. 10. 19.(월) ~ 10. 30.(금)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생필품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이 없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재해 구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통한 개인·지역별 욕구해소

2019년 행안부공모에 선정된 ‘짐강다리 행복센터’(100백만 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

고 해결하여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2020년에도 연달아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선남면 동암2리, 수륜면 남은2리, 금수면 광산1·2리, 대가면 흥산2리 등 4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지원 및 마을특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240백만 원)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되어 3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주제적인 복지마을을 공동체 구축을 위해 관내 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 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활력 사업,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인적 안 전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께 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하다

지역의 복지사업을 능동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8월에는 경북 최초로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모아 행복금고’ 및 ‘천만클럽’ 연합모금사업을 시작했으며, 일시적인 기부 형태의 문화를 정기후원 기부문화로 바꾸기 위해 각종사회단체, 개인을 중심으로 후원자 발굴에 노력한 결과 공무원·유관기관·단체·기업·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다.

한국 마사회 랠트론 재단에서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국민드림마차’ 공모사업에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요양원이 전국 5: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12인승 그랜드 승합차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민·관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또, 타 기관(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협력을 힘쓰고 있으며,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LPG 가스후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4월 1일 도내 군부 최초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시설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19년 완공된 키즈교육센터는 육아공동체 키즈맘, 키즈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수대학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게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밑반찬지원·사례관리 사업 등은 지역의 소외된 이들이 성주라는 공동체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서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 태권도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태권도 명문 용인대를 시작으로 여자태권도선수단 4개팀 총 5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성주군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진행되는 전지훈련에는 용인대학교, 충남도청,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 진천군청 선수단이 팀별 2일에서 12

일간의 일정으로 성주에 머물면서 훈련과 지역 관광지 방문, 맛집 탐방 등의 일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최한 동계전지훈련에도 전국 실업 및 중고등학교 20개팀 320명이 태권도 전지훈련을 위해 성주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주군은 별고체체육관 내 태권도훈련장 확장 이전과 각종 훈련시설 개선, 성주군 태권도선수단을 활용한 마케팅 등 전국의 많은 팀들이 성주를 찾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세일즈에 앞장서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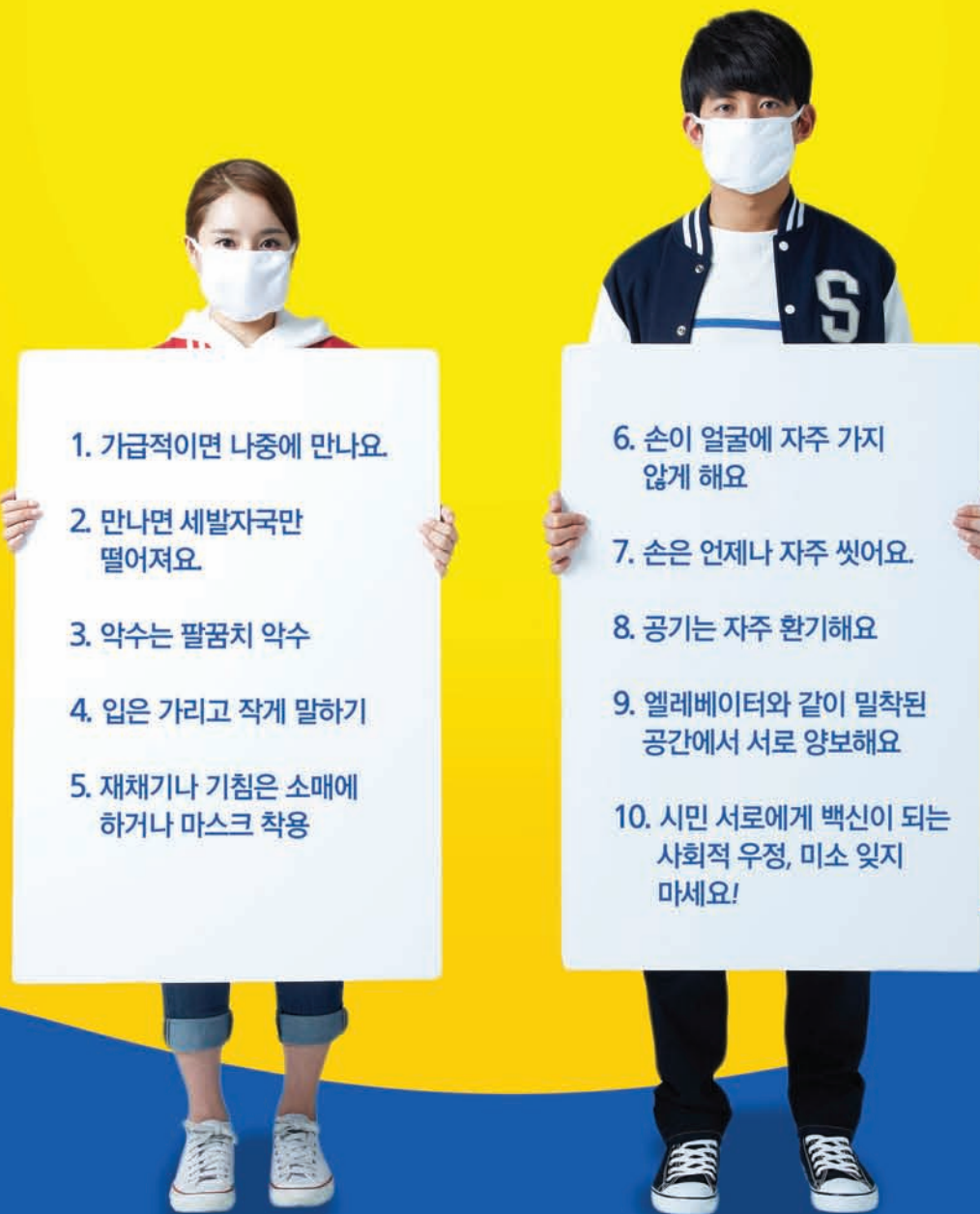
성주군 우수 농특산물 미국 수출 스타트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4일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8개 업체, 우수 농특산물 12개 품목’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수출 길에 오른 품목은 참외빵, 참외말랭이, 한과, 조청, 된장, 고추장, 간장, 미숫가루, 청국장, 건면, 갑자전분, 홍도라지 조청 등 매우 다양하다. 이번 수출은 성주군이 미국 윌타리USA 신상관 대표와 지난 8월초에 상호 협약을 맺고 진행해 왔다. 미국 윌타리USA사는 LA를 포함해 인근 도시에 4개의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 농특산물은 미국 내 최대의 한인 온라인 쇼핑몰인 미시USA 뿐만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 미국 전역에 판매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품질이 뛰어난 성주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미국 시장으로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뉴에티켓



1. 가급적이면 나중엔 만나요.
2. 만나면 세발자국만 떨어져요.
3. 악수는 팔꿈치 악수
4. 입은 가리고 작게 말하기
5. 재채기나 기침은 소매에 하거나 마스크 착용

6. 손이 얼굴에 자주 가지 않게 해요
7. 손은 언제나 자주 씻어요.
8. 공기는 자주 환기해요
9.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착된 공간에서 서로 양보해요
10. 시민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사회적 우정, 미소 잊지 마세요!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요!

mpn 미디어프린팅넷(주)

427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72 인쇄문의 T.053-583-1045~8 F.053-583-2955

푸른신문 · 푸른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15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종족농이배섯백숙
농이배섯오리백숙 W55,000
농이배섯닭백숙 W50,000
농이배섯갈비 W110,000
농이배섯계량 W12,000
T.635-3434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35 화원삼거리 역자타운 내

기타(타구)지역

커피와 디저트를 만나다
카페 투다트 팔공산점
달성군 팔공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 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정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당코딩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생민가 참숯가마 참숯 생삼겹살 맛집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86-8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 053. 586. 9988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99-1
새기장이라고
새기장이네!
새기장이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욱 **‘따뜻한 봉사’**
터미널 무료급식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인터넷 쇼핑몰 **“레드방”**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MODERN DESIGN & COZY COMFORT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의 약속함

우리 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 4
우리방송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재보 및 가입 A/S **551-2000**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름의 가치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련 이야기(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1회 19:00
2회 21:10
3회 23:10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대구수목원 국화 ‘가까운 도심에서도 즐기세요’

월광수변공원 등 27곳 분산 전시

대구수목원은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1만 5천점의 다채로운 국화작품을 대구시 주요도심지역 27개소에 분산 전시한다.

국화작품이 전시되는 곳은 대구수목원, 시청(별관), 동대구역 광장, 국채보상기념공원, 신천둔지와 주요 공원 14개소와 8개 구·군 보건소 등 총 27곳이다.

대구수목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국화 산책길을 조성하고 시청(별관)에는 ‘푸른대구가꾸기’의 상징인 ‘나무’ 모형과 ‘청정대구’의 상징인 ‘수달’ 모형을 전시하며 동대구역 광장에는 대구의 기상을 표현한 대형작품 ‘용’을 전시하는 등 대구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채보상기념공원에는 5m 높이의 ‘천마’ 모형작을 전시해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응비하는 대구를 표현하고 신천둔지에는 ‘코끼리’, ‘다람쥐’, ‘버섯’ 등 자연과 어우러진 국화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군 거점공원에도 다양한 국화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국화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소 입구에도 국화 화분을 배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할 계획이다.

이천시 대구수목원 소장은 “이번 국화전시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목원에 집중되는 관람객을 대구시 전역으로 분산될 수 있



도록 개최한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가을 국화의 향기와 함께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주요전시장소		전시장소
구분		
5개 주요지역	대구수목원	시청(별관)
	동대구역광장	신천둔지
	국채보상기념공원	이화공원, 서구문화회관, 퀸스로드, 서구청
	남구청	달서구
14개 공원 등	북구청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8개 보건소	8개구·군 보건소	

‘결에 온(ON) 생활문화’ 2020 우리동네 생활문화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10.17.)을 연계한 ‘2020 우리동네 생활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생활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를 보다 더 쉽고 가까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결에 온(ON) 생활문화’라는 슬로건 하에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하는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이다.

또 생활문화 온(on)택트 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집콕 생활문화예술 체험’은 대구문화재단을 통해 사전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8개의 강좌별로 체험키트를 미리 전달하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실시간 화상 또는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캔들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통기타 연주, 글쓰기, 풍경사진 잘 찍는 법, 캘리크

라피, 우쿨렐레 클래스, 삼화그리기 등 8개 온라인 체험강좌를 전문인력 및 예술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이 진행하며, 줌(ZOOM), VR인게이지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대구예술발전소 1층 키즈팩토리에서 진행되는 ‘플레이 온 생활문화’는 지난 5년간 개최된 생활문화제의 자료들을 한 곳에 보이는 통합홍보관으로 그동안 생활문화인의 활동 모습과 더불어 VR체험 및 랜선극장



결에 ON 생활문화 홍보물

등 체험 및 감상 중심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구·군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생생문화봄’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구 칠곡3지구 문화예술

‘공지사향’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실용성, 창의성, 작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구 관광 홍보에 활용 가능하며 실용성이 높은 작품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 숙박관광지도 디자인 공모

10월 16~30일 온라인 접수, 전국 누구나 응모 가능

대구시는 대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숙박관광지도 디자인을 확보, 대구 관광 홍보에 활용하고 대구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 숙박

관광지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내가 머문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지도(약도)를 디자인

해 참여하면 된다.

대구 관광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으며,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란 또는 대구관광 홈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율 전국 최저

대구시 지난해 30건 발생,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아

지난해 대구 지역 전체 교통사고(14,389건)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30건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해 특·광역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전국(전국평균 0.3%)에서 가장 낮고(0.21%), 보호구역당(개소) 교통사고율(전국평균 5.1%) 역시 광주(3.3%)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16~’20)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대구시가 최근 5년간 21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색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 안전헬스 및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신호 및 교통체계(제한속도 30km/h) 강화, 고질적 안전문제 불법관행인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확대 및 단속,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활동 강화, 어린이 교통랜드, 팔공산 테마파크 등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 '19년도 특·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현황

구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13,656	39,138	12,903	14,389	8,469	8,278	8,119	4,29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건수	604	1,475	471	775	439	407	218
	비율(%)	4.4	3.8	3.7	5.4	5.2	4.9	5.1
	사고건수	41	114	43	30	34	21	20
	비율(%)	0.3	0.29	0.33	0.21	0.4	0.25	0.56
개소당 비율(%)	5.1	6.5	4.7	3.8	4.6	4.5	3.3	6.8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19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주출입구 노상주차장을 전면 철거하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에 과속단속카메라(370대) 및 신호기(9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775건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는 964명으로 특·광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4.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5.4%) 나타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다.

※ 3년 간(18~’20)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 되도록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달서구 두류~ 두류~ 죽 드림(Dream)

달서구 두류3동(동장 장석태) 공무원 한마음봉사단은 14일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 30세대 건강지원을 위해 건강죽을 전달하는 ‘두류~두류 죽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류3동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봉사단에서 코로나19확산으로 병원이용 및 외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건강 죽 키트를 소화기능에 어려움이 있고 면역력이 낮은 장애인, 어르신, 질병가구 30세대에게 지원하며 공무원봉사단에서 전액 후원한다. 건강 죽 키트는 시판되고 있는 전복죽, 소고기죽 등 네 종류와 과일, 소독티슈, 장수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류3동 공무원 한마음봉사단은 2012년 구성이후 명절과일나눔, 무료급식봉사, 배트튼건강상자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두류두류 평안한 건강마을을 두류3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장석태 두류3동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지원 사업으로 장수



건강마을을 조성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도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동성로 친절여행상점 20곳 선정

온라인투표 진행, 영상으로 홍보 예정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쇼핑하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거듭나기 위해 ‘동성로 친절여행상점’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종 20곳을 선정했다.

온라인투표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동성로 일대 좋은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는 쇼핑상점,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진행했다.

투표자가 직접 친절여행상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예선

투표를 진행하고, 예선을 통과한 상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10,564 투표로 최종 20곳의 친절여행상점이 선정됐다.

테마파크,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상점은 오로지 대구시민과 대구를 방문한 여행객의 투표로 선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선정된 20곳의 상점에 대해서는 대구관광 글로벌 서포터

즈가 찾아가 친절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상점의 매력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동성로 친절여행상점 선정 명단 (20곳)
①나그늘 스트릿점(패션잡화·액세서리) ②교보문고 대구점(서점) ③쉐퍼버거 대구점(패스트푸드) ④스타벅스



동성로중앙점(카페) ⑤레드버튼 동성로점(보드게임카페) ⑥스파크랜드(테마파크/종합쇼핑몰) ⑦CGV 대구한일(영화관) ⑧도마29(일식집) ⑨올리브영 대구동성로점(헬스&뷰티) ⑩트러스토어(미용) ⑪전원몬가스(양식집) ⑫

삼송빵집 본점(베이커리) ⑬올리브영 대구 타운(헬스&뷰티) ⑭미진분식(분식집) ⑮반스 동성로점(신발) ⑯유이즈(일식점) ⑰메시(케주얼웨어) ⑱르플루(베이커리) ⑳동성로쥬꾸미 동성로1호점(주꾸미요리) ㉑다남길떡볶이(분식집)

〈자료제공·대구시청〉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가전렌탈시대!

CS 푸른방송 CJ헬로

상담문의 053-551-2000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19~30일까지 해당 구·군 등에 신청·접수
고교생 1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내 총 40명 예정

대구는 지역 근로자의 생
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
성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
한다.
선발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
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총 40명(고등학교
20, 대학생 20)을 선발할 예정

이다. 장학금은 고등학교생 150
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
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
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
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
어야 한다.
*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
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
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근로자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80%(4인 기준 498만
1,0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만 3,700원) 이하이면 신
청이 가능하다.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
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월평균 소
득액이 적은 자·전년도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

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
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30일
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고
시·공고’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
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
〈자료제공·대구시청〉

중장년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한곳에

10. 15.~12. 22. 일자리지원 3개 과정 프로그램 진행

대구는 지역 중장년(만
40~64세)들을 위해 다양한 일
자리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했
다. 대구시의 중장년 비중은
41.2%로 전국평균 40.1%보다
높고(8대 도시중 2위), 중장년
고용률(19년)은 73.1%로 전국
평균 73.9%보다 낮으며 매년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고용지표가 말해주

듯 고용의 허리인 40~50대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가운데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원
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제
공하는 일자리 3종 프로그램
은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일자
리 준비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아름다운 중장년
Happy Job 일자리 소통 커

뮤니티’는 구체적인 취업전략
도 없이 막연하게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들을 돕고자 지난
5월부터 매월 운영해 참가자
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SNS채널을 통해 일자리 정보
를 공유하고 개인 멘토링을
통해 중장년들과 소통한다.
국내 일자리 최고의 전문가
(취업·창업·창직)를 초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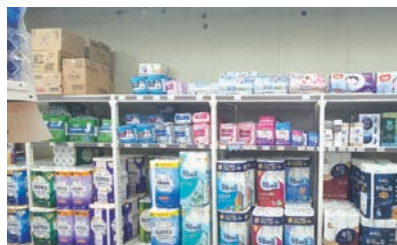
해 진행되는 ‘일자리 전문가
와 함께하는 3인 3색 일자리
토크 콘서트’는 주제로 차
별화된 핵심 강의와 질의응답
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일자
리 전략 수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없는 시대에 구직 대
신 평생직업을 위해 창직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진행 예
정인 ‘중장년 일자리 창직학
교’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중장년 일자리 부족과 선호

직업의 미스매치 극복방안을
공유하며, 창작 경진대회를
통해 자신의 일자리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창직(Job Creator)’이란 나의 직업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재능과
취미, 경험, 적성, 경력 등을 활용해 새
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gonestop.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053-803-
3490, sd0416@korea.kr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지역 위생용품 안전관리기준 ‘적합’

다소비 위생용품 안전성 조사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등 30건 적합

대구시 보건환경연구
원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화장지
나 식품접객업소 물티
슈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생용품 30
건에 대한 규격 검사들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피부에 접촉 빈도가 잦은 화장지의 경우, 형광증백
제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제품에서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구시는 관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
냅킨,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등 생활 밀착형 위생용품 30건을
선정해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0건 모두 품목 별 기준·규격(포름알데히드, 메
틸알콜, 비소, 납, 형광증백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관내
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
회용 위생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위생용품에 대한 안
전성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미네랄이 풍부한 ‘동네 우물물’ 마셔 봐요~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물은 인체의 모든 세
포와 액체의 구성성분으로
70%를 차지한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이 인체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보통 우리들이 먹는 물이라
면 수도물, 정수물, 생수, 약
수 등이 있는데 몸에 좋은 물
의 정의에서 △깨끗하다△미
네랄이 풍부하다△약알칼리
성이다 등 3가지 필요조건을
쫓았다.
깨끗하다는 것은 건강에 나
쁜 오·폐수와 화학물질로 오
염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
돗물은 정수장에서 수질 검사
를 하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물의 상태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아서 그 상
태를 알 수가 없다. 정수물은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 마
시는데 이것도 검사를 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다.
생수는 미네랄이 풍부하지
않다고 하며, 약수에서는 세
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
금 나오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물은 식수로 적합 관정을 받
은 것이기 때문에 먹기에는
괜찮겠지만 좋은 물인지는 살
펴봐야 한다.
대구시의 2016년 지하수관
리계획(2017~2026)을 짰 지
하수 전문기관은 “동네 우물
13개소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
합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좋은
물”이라고 결론 냈다. 13개 동
네 우물을 대상으로 4년간 36
회 수질을 조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전문
기관은 “질 좋은 내추럴미네
랄워터를 대구 시민에게 제공
하는 동네 우물을 확대해야
한다”며 “8개 구군별로 고르
게 30개소를 더 개발하라”고
권했다.
대구 동네 우물이 건강에
좋고 맛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가 일본 오사카대 하시오
토 교수가 제안한 방식을 적
용해 동네 우물 11곳의 물과



서구 평리공원

수돗물과 약수, 시판 생수, 정
수기물 등 39가지를 비교 분
석한 결과 동네 우물물이 가
장 좋은 물로 조사됐다(TBC
대구방송, 2019. 11. 28.)
이런 우물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식수로 이용하지 못한
시민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
다. 대구 동네 우물은 주로 공
원에 있으니, 공원에 산책하
거나 운동하러 가는 일이 있
으면 마셔보기를 바란다.
윤준순 객원기자

♣ 대구 동네 우물 현황(11개)

동네 우물명	소재지	심도(m)	구경(mm)	취수가능량(톤/일)
평리공원	서구 평리동 1230-1	120	200	50
중리공원	서구 중리동 120-5	120	200	50
상리공원	서구 상리동 산163	120	200	50
대명어린이 공원	남구 대명동 1828-1	110	200	50
구암근린공원	북구 구암동 694	150	200	90
수목어린이공원	수성구 황금동 721	160	250	50
화랑공원	수성구 만촌동 1424-2	102	250	50
달서구노인복지관	달서구 본동 804-2	121	250	50
두류공원야외음악당	달서구 두류동 588-2	120	200	50
본리어린이공원	달서구 본리동 88	120	200	50
돌산공원	달서구 신당동 1716	134	250	50



저소득층 수험생 무료 입시 상담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6일 ㈜UWAY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학년
도 입시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시·정시
합격진단,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사 등 양질의 온라인 입시콘텐츠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
하의 저소득층이며, 학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유투에닷컴 회원가입 후 최종 승인을 받
으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대학진학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만기 UWAY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달서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학
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치킨 상자’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전국에서 하루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5만 톤이 훌쩍 넘으며 이는 4.5톤 쓰레기
수거 차량 약 8백 대 분량이다. 이러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 중이다. 이 제도로
쓰레기양이 확연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종량제 봉투
에 담아 버려야 하는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와 재활
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먼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를 살펴보자. 일단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름이 묻은 치킨 상자나 접라면 용기,
식용유 병 등이다. 물론 세척을 깨끗이 하고 말릴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분리배출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품목도 많이 있다. 날개로 과일을 포장한 과일망
과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도자기 사기그릇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
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끈, 화장지, 아이스팩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페트병이나 종이,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이 가능한 품목들은 어떻게 버리는
것이 맞을까? 우선 페트병의 경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려 배출해
야 한다. 종이박스 또한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버리고 다 쓴 연습장
도 스프링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한다. 플라스틱류도 이물질이나 내용물을 제거한 뒤 버
리면 되고 특히,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이 재활
용에 용이하다.
폐가전 제품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무상수거가 가능하며 콜센터 전화(1599-0903)나 인
터넷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이 따로 만들어져 폐가전 수거를 돕고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79@hanmail.net



138. 당상천황·마당천황·보안천황, 논공 천왕당

1) 프롤로그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자신의 마을에 있는 ‘논공 천왕당’을 지면에 소개해 달라는 것. 필자는 작년 이맘 때쯤 본 지면을 통해 우리 지역에 산재한 서낭당과 마을동체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 바가 있다. 해당 연재에서 현재까지 동체가 행해지고 있는 서낭당을 소개하면서 논공 천왕당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다. 필자의 글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다는 애독자의 요청인 만큼 이번에는 ‘논공 천왕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논공 천왕당은 논공을 남리과 북리 사이 야산자락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마을신이 머무는 공간, 서낭당·성황당·천왕당

옛날에는 마을마다 마을신을 모시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네 마을신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마을의 평화와 풍요는 물론 풍년과 풍어, 자연재해와 질병 예방, 득남(得男)·소원성취 등 못하는 것 빼고는 다하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었다. 물론 천신·지신·해신(海神) 같은 최상급의 신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너무 먼 곳에 있는 신이었다. 백성들은 급이 좀 낮더라도 자신들과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마을신을 더 믿고 의지했다.

마을신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성황당·선왕당·천왕당·당산·당집·당목·할배당·할배당·조산(무더기)·돌탑·천왕매기·골매기·수구막이·국수막·국시당·진포배기·돌무덤·말무덤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에서는 주로 서낭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서낭당은 마을입구·길가·고갯마루·산기슭 등에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서낭당 형태나 신의 종류가 달라진다.

서낭당 형태는 크게 ‘돌무더기형’·‘신목(神木)형’·‘돌무더기+신목형’·‘당집형’으로 분류된다. 마을입구·고갯마루·길가처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은 돌무더기형·신목형·돌무더기+신목형 서낭당이 많다. 이곳에서는 주로 길손의 안전을 기원하거나, 주민 개개인의 소원을 기원한다. 이에 비해 마을 깊숙한 곳이나 산중에는 당집형 서낭당이 많다. 당집형 서낭당은 동제처럼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원이 주로 행해진다.

서낭당의 위치에 따라 마을신의 종류도 달라진다. 서낭당은 대체로 산중에 있는 상당, 마을 중심에 있는 중당, 마을입구에 있는 하당으로 나뉜다. 이 중 상당은 최고 등급의 마을수호신인 ‘산신’을 모시는 곳이고, 중당은 ‘동신(洞神)’을, 하당은 ‘골매기신’을 모신다. 골매기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인물을 신격화한 마을 개척신이란 설이고, 다른 하나는 골짜기로 들고나는 길꾼과 액운을 다스리

는 신이란 설이다.

3) 최상급 마을신 당상천황

마을에 따라서는 서낭당이 상당·중당·하당으로 나뉘지 않고 한 곳에만 있는 곳도 많이 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논공 천왕당도 여기에 해당한다.

논공 천왕당에는 모두 3위의 마을신을 모시고 있는데 신들의 위패에는 각각 ‘당상천황(堂上天皇)·마당천황(馬堂天皇)·보안천황(保安天皇)’이라 새겨져 있다. ‘성황신·산신·천신’하는 보통의 서낭신 이름에 비해 낮설고 어려운 이름들이다. 생각건대 당상천황은 마을의 모든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최상급 마을신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상당에 모셔진 산신이나 천신 정도쯤 될 것 같다.

4) 마신(馬神), 마당천황

마당천황은 그 이름만큼이나 정체가 묘하다. 추측건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고려·조선시대에 행한 ‘마조·마사·마보·선목’ 같은 성격의 제사일 가능성. 다른 하나는 서낭신의 탈 것으로써의 말, 혹은 호환(虎患)을 물리치는 말을 신격화한 것일 수 있다.

먼저 ‘마조·마사·마보·선목’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고려·조선시대 국가에서 인정한 제사인 국사(國祀)는 크게 대사·중사·소사·기고·속제·주현제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말에 대한 제사인 ‘마조·마사·마보·선목’은 소사에 해당했다.

마조제는 말의 조상, 마사제는 마굿간 토신, 마보제는 말에게 해를 끼치는 신, 선목제는 말을 키우는 방법을 처음 가르쳐준 시조에 대한 제사다. 전통시대에 말은 전투력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만큼 중요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동과 운송수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축 중 하나였다.

다음으로 서낭신의 탈 것, 호환을 물리치는 말이라는 측면을 보자. 강원도 지역 서낭당에는 유독 철로 만든 작은 말조각상이 많이 모셔져 있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철마인데 그 유래가 무척 흥미롭다. 철마 유래설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철마는 신의 탈 것 혹은 사자(使者)의 의미인 것 같다. 박혁거세의 백마, 동명왕의 기린마, 천마총의 천마처럼 고대로부터 말은 신의 탈 것, 사자로 인식되어왔다. 그런데 서낭당에 모셔진 철마의 경우 다리가 하나없는 예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호랑이를 쫓기 위해 말이 뒷발질을 하다 뒷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그렇다는 설이 있다. 한편 이와는 전혀 다른 설도 있다. 서낭당에 모셔진 동물상이 말이 아닌 12지신 동물상이라는 설이다. 12지신 동물상이 서낭당에 모셔진 것은 열두 띠와 관련 있는 12지신이 마을주민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사목과 돌담에 둘러싸인 논공 천왕당



논공 천왕당 감실에 봉안된 위패

5) 골매기신, 보안천황

보안천황은 말 그대로 마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으로 마을 입구 하당에 머무는 골매기신과 비슷한 것 같다. 참고로 논공 천왕당에 걸려 있는 「산제당이건기」에 「산기슭에 민가 200-300호가 있고, 마을과 산의 형국이 말안장[마안·馬鞍]을 걸어둔 것 같다하여 안인동(安仁洞)이라 이름했다」는 대목이 있다. 보안천황은 안인동[安]을 보호(保)하는 마을신이 되는 셈이다.

6) 에필로그

우리 고장을 넘어 대구광역시 안에서 가장 품(?)나는 서낭당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논공 천왕당이 첫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지금의 천왕당은 본래 인근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24년 현 위치로 이간한 것이다. 2009년 동네 아이들의 실화로 서낭당을 둘러싼 노송 중 일부가 고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노송과 돌담에 둘러싸인 논공 천왕당은 묘하고 신령한 기운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산제당이건기」에 의하면 이곳은 서낭당이 들어서기 전부터 신령스런 기운이 감도는 터였음을 알 수 있다.

‘산정상부 약간의 평지에 기이한 돌과 노송이 열 지어 둘러싼 읍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천왕당 감실 앞에는 소원을 기원하며 사람들이 올린 동전·음료수·과자·사탕 등이 자주 눈에 띈다.

목요단상(木曜斷想)

살다보면 살아진다

‘그저 살다보면 살아진다.’

뮤지컬 서판제에 나오는 노래 ‘살다보면’의 가사다. 가사만 읽듯 보기에는 무의미하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여유와 긍정, 희망과 극복을 노래한다. 뮤지컬 외에도 여러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는 애절한 멜로디와 공감 가는 노랫말로 많은 사람이 가슴으로 듣는 노래,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라고 평한다.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물에 떠내려간 소가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생존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더불어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고사성어가 화자되기도 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는 소는 살지만 제 힘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가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다. 살다보면 아무리 애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나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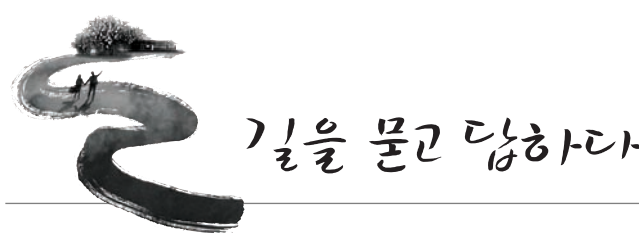
코로나가 열 달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경제도, 문화도, 취미도, 사회적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했던 많은 일들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분명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새롭게 느끼는 것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던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된 것이다.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 술 한잔 나누면서 추억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가끔은 가기 싫은 적도 있었지만 매일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내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실이 행복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잘 사는 삶인지도 모른다.

여행할 때 한번은 경험하는 일. 차를 타고 유명관광지를 찾아 한참 가다보면 목적지가 어디쯤인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자주 묻게 되면서 정작 가는 길에 펼쳐진 멋진 풍경은 모두 놓쳐버린다. 여행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보는 것, 먹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 있는 여정이다. 여행의 의미를 모르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처럼, 목적만 무조건 쫓다보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찾을 수가 없다.

과정을 즐기는 삶,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 나름의 가치관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 살면 된다. 그저 살다보면 살아진다.

변점식 기자



길을 묻고 답하다

조선왕조 500년의 버팀목



구용호 건양대학교 교수

자가관리를 위해서 금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를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옛말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한다’, ‘황금보기를 둘 같이 하라’ 등 여러 가지 돈에 관련한 교훈적인 말들이 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형태로 금전적 유혹을 받게 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금전의 유혹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교훈을 삼고자 한다.

영조 때 호조의 서리를 하던 김수평(金守平)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동생 역시 선해청의 서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집에 들

러 보니 마당에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 향아리가 있었다. “이 염료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가?” “제 아내가 염색을 해서 궁한 살림에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다같이 국록을 먹고 있어 굶지는 않을 형편인데 집에서 이런 염업까지 하면 저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 관련된 자가 백성의 생업까지 빼앗는 데서야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동생은 곧 향아리를 얹어 염료를 쏟아 버렸다. 이 일화는 ‘지봉유설(芝峯類說)’을 본 이수광의 ‘조선의 방외지사(方外志士)’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성종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양관(梁灌, 1437~1507)이라는 사람이 장흥부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암행어사가 불시에 들이닥쳐 그 행장을 수색했다. 벼슬을 하는 동안 치부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였다. 그러나 행장 속에는 ‘소학(小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집과 금(琴), 적(笛) 뿐이었다. 어사는 그 사실을 적어 임금께 아뢰었다. 성종은 양관을 당장 의주목사로 승진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화공을 시켜 어사가 양관의 행장을 뒤지던 그 장면을 그리게 하였다. 이후 벼슬 아치들이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문안을 드릴 때, 그 그림을 가리키며

관직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행색을 본받으라는 훈계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양관의 행장도(行裝圖)’라는 그림이다.

인용한 이야기들이 좀 장황하였지만 우리 조상들의 기상이 대개 이러하였다.

청백리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만도 3백 명이 넘는다. 이런 깨끗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역사가 운데서도 조선왕조가 500년이 넘도록 버텨 온 것은 아닐까.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 쌍방향 원격수업 '어떻게 하나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쌍방향 수업을 준비 중이다.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교사용 팸플릿이 배부되었으며 학생들도 쌍방향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들을 수 있는지 실습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리 잡은 쌍방향 원격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학생은 선생님이 학급 SNS에 올려준 링크나 따로 안내받은 수업 코드로 수업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수업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학생은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와

웹캠을 교과서 등 수업 준비물과 함께 준비하면 되고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소통하기 위해 헤드셋이나 마이크를 추가로 준비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돕는 소프트웨어인 Zoom과 Meet 등의 프로그램을 교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Zoom의 경우 홈페이지(Zoom.us)에서, Meet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의 구글 계정에 가입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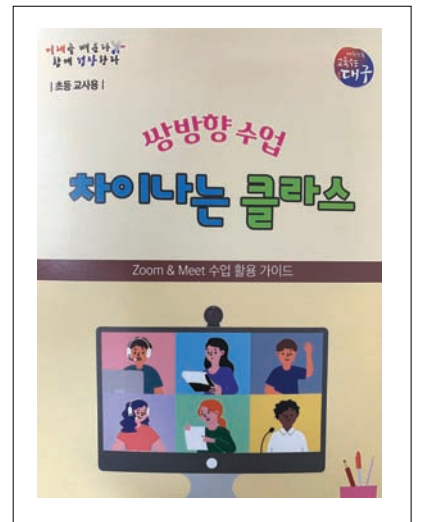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도입이나 전개, 정리 활동 등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부분에서 학습할 내용을 설명하거나 동기유발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해 토의 토론 활동이 가능하며 모둠별 소회의실 기능으로 별도의 회의내용 작성 없이 화면 공유를 통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 협력학습 도구인 구글 슬라이드나 줌보드 등을 활용하면 활발한 상호 피드백을 통한 동아리 홍보 포스터제작, 속담 모으기 등과 같은 세부 활동도 원격으로 가능하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화면 공유를 통해 다른 모둠의 작품이나 회의 결과를 살펴보고 동료평가를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가지고 형성평가를 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유엔에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



성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종식 이후에도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객원기자

중학생용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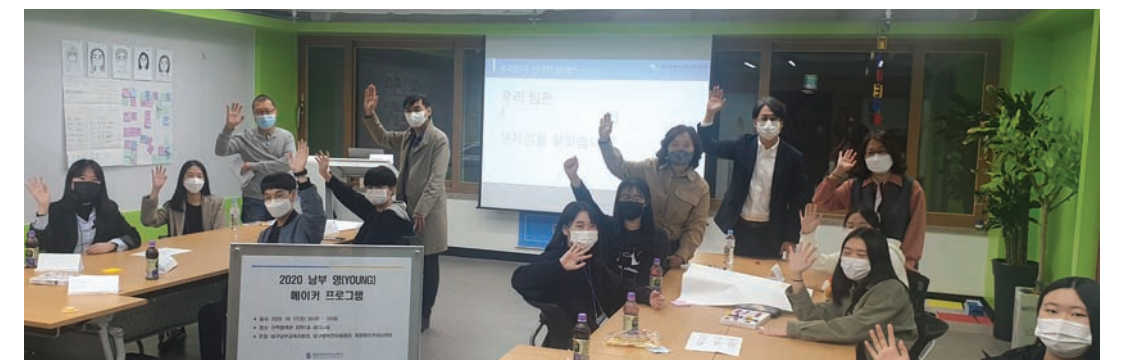
남부교육지원청, 쉽고 재미있는 메이커 수업의 기초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중학생용 메이커교육으로 '영(YOUNG) 메이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7일부터 10주간 5개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 수업은 계명대학교 메이커러닝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며, 1기(10월 17일 개강)와 2기(11월 21일 개강)로 나누어 각 20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영 메이커 프로그램'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메이커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학생들은 5명씩 1팀이 되어 디자인씽킹, 아두이노 수업, 센서 활용 시제품 제작, 발표 및 공유 등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하였으며, 가급적 동일교 학생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한다. 차후 확대 운영하여 학교 상상제작소와 메이커스페이



스 수업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내가 생각한 것을 제품으로 제작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수환 교육장은 "메이커 정신은 도전과 창의적 실행능력이 뒷받침될 때 길러질 수 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

이 자신만의 동굴에서 상상하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남부교육지원청〉

코로나19와 다문화교육

대면수업뿐 아니라 원격수업까지 시행하면서 학교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 언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일반학생은 물론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더 각별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나 다문화 학생의 경우 국내 발생보다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파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너도 해외에서 왔지 않냐, 빨리 검사를 받아보라"라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코

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몇 가지 마련하여 실행 중이다. 우선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개학 등과 관련해 10개에 가까운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실제로 온라인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이들이 안내받아야 할 사항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채 안내장으로 받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원격수업 플랫폼인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과 여러 개의 언어로 제작해 탑재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처음 해보는 원격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밖에도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원격수업 상담 콜 센터를 운영하거나 다국어 문자서비스도 해당 다문화 가정에 안

내하였다. 다문화교육도 그간 해오던 것에서 늘려 다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원격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들도록 하였고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 가정의 한 학부모는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고 더 이상 내용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함을 표현했다. (다문화 교육 관련 영상 탑재: 유튜브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채널) 이원욱 객원기자

재 미 를 담 다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달성도서관 2020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 개최

달성도서관(관장 김화숙)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2020년 책 읽는 가족’으로 2가족을 선정하고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0년 ‘책 읽는 가족’에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9년 한 해 동안 대출권수가 많은 이정희 씨 가족(489권)·유지호 씨 가족(451권)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인증서와 시상품이 수여되고, 가족구성원 모두 1년간 도서 대출권수가 10권에서 20권으로 확대되며, 대출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게 된다.

‘책 읽는 가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족단위의 독서생활화와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용활성화

를 위한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이정희 씨, 유지호 씨 가족에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도서관도 지역민들의 가족 단위 독서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도서관>



부모-자녀 소통 확대를 위한 부모교육

달성Wee센터, 학부모 심리 갈등 해소 기대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Wee센터는 16일과 23일 이틀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부모-자녀 간 마음을 이어주는 의

사소통 기술: 비폭력대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 내 자녀 양육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학생 및 학부모가 건강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비폭력대화 전문가 권란희(심리상담센터 ‘와락&피스’) 센터장은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폭력 대화 실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속적인 부모교육 및 자문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녀양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친 연속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성철 교육장은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님의 마음을 치유 받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교육지원청>



사제 멘토링으로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요~’

6학년 성진이는 지난주 담임 선생님과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다. 올해 들어 이렇게 선생님과 평소 해보지 못했던 문화체험을 한 것도 벌써 세 번째이다. 다른 평범한 친구와 달리 사실 성진이의 부모님은 북에서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이고 이로 인해 성진이의 경우 13살의 나이답지 않게 문화 경험이 거의 없었다.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사제 멘토링’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 및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유대감 강화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성진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한 부모 가정 등이며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아는 담임교사가 학생 1~2명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선생님과 함께 영화나 뮤지컬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도 상담해요. 일론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야구장도 가보고 싶어요.”

담임을 맡고 있는 김정란 선생님은 성진이가 사제 멘토링을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멘토 멘티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소 위축되어 있고 친구와 말도 거는 소극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랑 멘토링을 통해 가까워지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니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학교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제 멘토링 사업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권장한다. 사제 멘토링으로 할 수 있는 권장 사업으로는 교과와 연계한 요리교실, 진로 체험 등이 있고 교과 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문화체험이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내 및 교외활동 실시가 특징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CM 코리아 챔버 앙상블 공연

10월 24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2020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의 세 번째 지역 오케스트라, ‘CM 코리아 챔버 앙상블’ 공연이 24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펼쳐진다. 고정된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음악적 발전을 꾀하는 CM 코리아 챔버 앙상블은 오로지 바로크 시대의 음악만으로 공연을 꾸며, 실내악의 매력을 대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자, 앙상블 및 독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우연, 알토 카운터테너 조요한이 협연으로 함께 하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찬영이 지휘봉을 잡았다. 문의)053-250-1448, 예매) <http://concerthouse.daegu.go.kr/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661-2431

<자료제공 대구시청>

어린이를 위한 국악뮤지컬 ‘토돌이의 모험’

10월 24일(토) 대구문화예술회관, 재미와 교육이 함께하는 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국악 저변 확대와 문화 관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악뮤지컬 ‘토돌이의 모험’을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최한다.

‘토돌이의 모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현대적인 시각

으로 각색해 국악뮤지컬에 접목했다. 대구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동·서양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며,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종합예술 공연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나들이가 쉽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재미와 문화적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돌이의 모험’은 2017년,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이전보다 화려한 무대, 탄탄한 스토리와 음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대구시립예술단들이 출연하여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연출가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손호석의 대본을 바탕으로



토돌이_윤정화



별주부_남준우



연출_김성경



예술감독_이연창

로, 김성경이 연출을 맡아 이야기의 재미를 풀어낸다. 음악은 부산대 교수인 이정호 곡으로 대구시립국악단 이현창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대구시립국악단이 연주한다. 또한 대구시립무용단 김성룡 예술감독의 안무로 대구시립무용단이 출연해 공연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대구시립극단의 윤정화(토돌이), 남준우(별주부), 김현준(용왕), 정가빈(토돌이 엄

마), 정영래(여우) 등이 출연하며, 지역의 젊은 소리꾼 김수경이 해설자로 나서 어린아이들에게 전통의 낯섬을 친숙함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현대 아이들에게 익숙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며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재미를 찾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재미와 교육이 함

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관람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 10월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의) 053-606-6133
티켓) 전석무료(사전신청)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안전하다’ 캠페인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공연장 전체좌석 개방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도 될까?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으며 체온측정 등 기본 방역수행과 수칙을 지키면 관객에게 ‘공연장과 전시장은 오히려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장과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방역 기본수칙 준수가 공연 전시장을 다시 열 수 있는 원동력이자 최적의 백신임을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첫 번째 슬로건으로 ‘대화

를 멈추면 공연은 계속됩니다’ 문구를 앞세워 안전한 공연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공연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두 번째 ‘코로나 극복 관객 실천 방안’ 슬로건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시 대화는 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술을 즐기고 감상하자는 힐링의 의미를 전달한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계자는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장의 특성상 전염병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기본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공연 및 전시 관람 시 위험성을 최대한 줄

여 공연·전시장을 닫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국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객과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공연 및 전시장에 혹독한 시련이 불어닥쳐 예술가들에게 큰 위협을 안겼다”며, “단지 전염병 때문에 예술과 함께하는 삶을 멈출 필요는 없다.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멘델스존 & 슈만 음표로 그린 ‘두 청춘의 꿈과 낭만’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67회 정기연주회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하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의 ‘제467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이 공연은 당초 9월 11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미뤄져 29일에 선보인다.

곡목도 변경됐다. 전반부는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을 그대

로 연주하되, 후반부는 슈만의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바이올린 협연은 2019년 세계 3대 국제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서 만 19세의 나이로 3위를 차지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김동현이 나선다.

대구시향과의 첫 협연을 앞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은 2018년 3월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할 당시 심사위원장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으로부터 ‘어린 나이답지 않은 진지한 음악성과 테크닉으로 촉망받는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만 13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그는 예원학교 전 학기 수석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졸업했다.

대구시향 줄리안 코바체프 상임지휘자는 “눈부신 청춘의

순간, 비범한 천재의 면모를 보여준 작곡가 멘델스존의 두 작품과 청춘의 열정이 깃든 슈만의 교향곡 무대를 마련했다. 여기에 한국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동현이 대구를 찾는다. 꿈을 향한 그들의 반짝이는 음악 세계에 빠져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연주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대구시향 ‘제467회 정기연주회’는 일반 R석 3만 원, S석 1만 6천 원, H석 1만 원으로, 객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공연 당일 오후 2시 30분까



줄리안 코바체프 상임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지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인터파크(1661-2431) 등에서 예매할 수 있고, 예매 취소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문의) 053-250-1475
<자료제공:대구시립교향악단>

도심 속 생태체험공간으로 정비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6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길우어린이공원을 도심 속 생태체험공간으로 재정비하고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을 통해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2000년도에 조성된 길우어린이공원을 기존 놀이터에서 벗어나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조

성했다. 또한, 기존의 울창한 수목을 보존한 자연공간과 체육시설 및 파고라 등이 있는 휴식공간, 언덕을 오르내리고 나무로 된 놀이기구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놀이공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 놀이기구와 누워서도 이용 가능한 바구니그네를 설치해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달서구, 길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개장



이태훈 구청장은 “아이들이 장애와 상관없이 맘껏 즐기며,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공

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의성

을 기를 수 있는 공원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실내운동’ 노인층과 청장년층 다르게 해요

건보공단,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동영상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스유연성운동(준비단계)



노인층 대상 동영상 사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구성했고, 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 어깨,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 시 주



청장년층 대상 동영상 사진

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했으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운동매뉴얼>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 가능하고, 유튜브(YouTube) 채널 및 해당 지역별 케이블 방송(11월

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강정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운동 동영상도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1577-1000, 033-736-3533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칼럼



보성조한의원 원장 조현 정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뼈 건강 적신호

10월이 되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날이 추워지면 일조량이 줄고 실외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타민D 합성이 어려워진다. 이 유명한 비타민D는 20~30분정도 햇빛을 쬔면 합성되며 체내의 칼슘을 뼈에 축적시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타민D가 부족해지고 활동량 감소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골(筋骨)격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성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 뼈를 파괴하는 단백질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기 쉽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면 골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의 뼈는 35세를 전후로 골밀도가 최고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골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가 여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골밀도가 줄어들게 되면 낙상이나 외부의 가벼운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될 수 있고 회복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통증을 일으킨다.

한의학적으로 뼈(骨)는 신주골(腎主骨)이라 하여 신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신장의 기능을 보하는 한약처방이 주로 사용된다. 두충, 우슬, 오가피, 상기생, 녹각과 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強筋骨)하는 약재들을 다용하며,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비장, 심장, 간장 등의 기능을 보하는 처방이나 약재가 사용되기도 한다.

골다공증과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탄산음료 섭취 등을 줄이고,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D가 합성될 수 있도록 햇빛을 충분히 쬘고 연어, 고등어, 달걀 등 비타민D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가 힘들 경우 비타민D와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균형감을 키워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좋다. 또한 뼈에 부하를 주는 운동은 뼈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어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고령자나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사람들의 경우 무리한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좋다. 집에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다.

대구시 달서구달구벌대로 1607/ 보성조한의원 ☎053-564-0401

치매어르신 친구가 되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를 시작으로, 2018년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노령인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의 하나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치매에 대한 증가세와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60세 이상인 54만1,073명 중 치매 환자수는 3만 6,716명으로 유병률 6.7%를 보이며, 65세 이상인 36만 7,032명 중 치매 환자수는 3만 5,665명으로 유병률 9.7%를 보이고 있다.

달성군은 60세 이상인 4만 5,169명 중 치매 환자 수는 2,964명이며 유병률 6.56%를 보이고, 66

세 이상인 2만 9,474명 중 치매 환자수는 2,867명에 유병률 9.74%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대구시와 달성군에도 많은 치매 환자의 분포도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달성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란 표어 아래 치매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치매 파트너란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이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환자를 배려하며, 내 주변 치매 가정에게 안부를 묻고,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에 대한 정보전달과 인식 개선활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치매 파트너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1월 20일까지, 선착순 3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partner.nid.or.kr>)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문의는 053-668-3841~7로 하면 된다.

치매 어르신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치매파트너 모집

- 모집기간 : '20. 10. 19.(월) ~ 11. 20.(금)
- 모집대상 :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선착순 300명)
- 신청/선정

①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partner.nid.or.kr>)

② 치매파트너 신청 및 온라인 교육(30분) 참가

-가입 시 등록관할센터 "달성군치매안심센터" 필수선택

③ 달성군치매안심센터 인스타그램(ds_remember)

-달성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치매파트너 ID 댓글로 달면 완료

④ 온라인 교육 수료 인증한 신청은 300명 소정의 사명을 지급(선착순만수령)

· 신청자 발표 : '20. 11. 24.(화)

※ 달성군치매안심센터 인스타그램 공지

■ 문의 : 달성군치매안심센터(053-668-3841~7)

▶참고사항

1. 일반인 기간 내 신규 치매환자(치매 환자와 동반자)와, 신청을 마감사 미연락는 추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활동기간에 관하여는 달성군치매안심센터로 지체없이 문의하십시오.
3. 교육 활동물에 등록 수종자 및 수종받은 인사사항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게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이벤트 참여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따른 치매 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함께, 치매 어르신을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재훈 객원기자

희망천사가 되어주세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한적십자가 함께하는 위기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이제 8살이 된 민우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왼쪽 다리를 잃었다. 수술과 재활이 꼭 필요하지만 기초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가정형편에 치료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실상 가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민우의 아빠 또한 코로나 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민우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기가정에서 절망

속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 민우 가족처럼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한적십자가 함께 손을 잡고 '희망천사'를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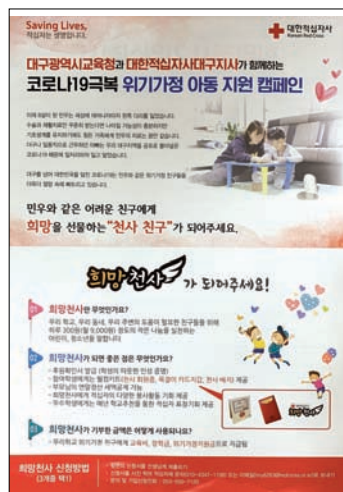
‘희망천사’란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하루 300원(월 9,000원) 정도의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희망천사에

게는 후원확인서가 발급되고 웰컴 키트(천사 회원증, 목걸이 카드지갑, 천사 배지)가 제공되며 적십자에 문자(010-4347-1108)하거나 이메일(lmy6263@redcross.or.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희망천사에게 적십자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우수학생에게는 매년 학교추천을 통한 적십자 표창기회가 제공된다.

기부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될까? 희망천사의 따뜻한 기부는 먼저 해당학교의 위기가정 친구에게 전해지며 교육비, 장학금, 위기가정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인성을 갖추어가는 시기의 아이들이 어려운 처지의 친구에게 직접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기회인 동시에 배려와 봉사 정신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새겨줄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가입신청 ☎ 053-550-7120

이원욱 객원기자

애니맥스 TV최초 방영!

도티TV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첫방송

ANIMAX

©SANDBOX NETWORK All Rights Reserved.

우리동네 구성구성,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우리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10월 26일 ~ 11월 1일

재미로 보는 10월



36년생 많은 돈이 들어올 때 건강을 챙겨라. 48년생 규칙을 지켜갈 때 일이 잘 풀린다. 60년생 누름을 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2년생 일을 포기하면 오히려 잘 풀리게 된다. 84년생 헛 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다. 96년생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오면 오래된 사람을 믿어야 한다.



37년생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하지마라. 꼭 문제가 된다. 49년생 일한 만큼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잘못된 일은 들어내야 해결이 된다. 73년생 이미 지난 일은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좋다. 85년생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97년생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38년생 경솔하게 행동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50년생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 근심도 없다. 자 중할 것. 62년생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라. 74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시기다. 86년생 현재 어렵다고 해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98년생 남을 위해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39년생 어린 사람과 다투면 손해를 본다. 51년생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설수를 조심하라. 63년생 자신을 낮추고 근심해야 일이 풀린다. 75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87년생 조금만 참으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40년생 하늘이 돕는 운이니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 52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 흉한 일도 길하게 변할 수 있다. 64년생 옛사람의 신임을 받게 되니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6년생 실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과로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88년생 규모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큰 기회가 다가온다.



41년생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한다. 53년생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사람들과 화한다. 77년생 옛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된다. 89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시를 구분해야 한다.



42년생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54년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66년생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 78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된다. 90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43년생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다. 55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에 충실 하라. 67년생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니 공명을 탐하지 마라. 79년생 작은 욕심으로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91년생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곧 다가온다.



44년생 큰물에서 놀게 되니 얻는 것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56년생 길흉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남을 탓하지 마라. 68년생 부정 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80년생 작은 노력으로 크게 얻으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92년생 일이 지연되지만 결국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고지가나앞에 있다.



45년생 나중을 위해서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니 나서지 마라. 57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69년생 거래처가 바뀌고 아랫사람과의 교류도 없어질 수 있다. 81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주변의 인심을 얻게 된다. 93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니 인기가 상승한다.



46년생 되도록 큰물에서 놀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58년생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70년생 부정 한 행동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94년생 이성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47년생 주변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9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순서부터 정해야 한다. 71년생 실패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경험이 많은 만큼 실수도 줄어든다. 83년생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 95년생 이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성을 멀리하라.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10월 22일 목요일	10월 23일 금요일
최저 13℃ 최고 21℃	최저 7℃ 최고 18℃
10월 24일 토요일	10월 25일 일요일
최저 5℃ 최고 17℃	최저 8℃ 최고 21℃
10월 26일 월요일	10월 27일 화요일
최저 8℃ 최고 21℃	최저 8℃ 최고 21℃



시시상식 핑크블리

쥐꼬리새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9~11월경 분홍색이나 자주색의 꽃이 피어 장관을 이룬다.

벼룩 버과 쥐꼬리새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 말로는 털쥐꼬리새라고 한다. 분홍색이나 자주색의 꽃이 피어 핑크블리라고 부르며, 역사와 비슷하게 생겨서 분홍 역사라고도 부른다. 핑크블리의 높이는 30~90cm이며 잎은 녹색이다. 9~11월경 분홍빛이나 연한 자줏빛, 보라빛의 꽃이 피어 멀리서 보면 핑크빛 물결처럼 보인다.

서식과 특징

핑크블리는 모래와 자갈이 많아 배수가 좋고, 사방이 트여 있으며 적당히 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가뭄이나 더위 등도 잘 견디고 질병에 강하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어서 조경용으로 식재하기 쉽다. 한국에서는 2014년 제주도 휴애리 자연생태관에서 핑크블리를 처음 식재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순천만국가정원, 경주 첨성대 인근 등에 심어졌다.

핑크블리의 형태

핑크블리는 모여나기, 즉 한곳에 뭉쳐서 자라며 줄기가 곧고 마디에 털이 나 있다. 초록색 잎은 길게 자라며 가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의 모양은 납작하며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들어가 있다. 타원형의 열매는 약 1.5cm 크기이며 갈색을 띤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시상식사전, FMG 지식엔지니어스

퍼즐



제995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①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지 발표 : 1,143호

993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강장
씨네80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서선영(일성군 가청면 / 권여민(일성군 다사읍)

미과 SPOLLEX
HIGWANGSPOLEX
고품질 화이트니스 클린 스페셜스모크/명왕성/시우나
이용권 2매 ☎ 593-9990~8
유병철(일서구 월성동)



이용권 2매 ☎ 585-0100

이재나(일서구 감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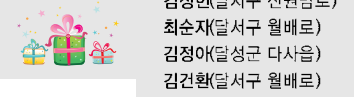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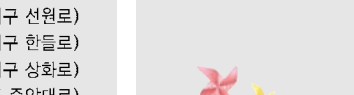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정영혜(일서구 당산로)
이재형(일서구 용산동)
안영득(동구 효동로)
김정현(일서구 선원동)
최순재(일서구 월배로)
김정애(일성군 다사읍)
김진현(일서구 월배로)
박민재(일서구 장산로)
김선자(일서구 청호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백경이(일서구 용산동)
최민영(일서구 선원동)
김두현(일서구 한들동)
양연숙(일서구 상하로)
홍옥순(중구 중앙대로)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가로열쇠

- 보통 흔히 있는 일. 일이 하도 많아 밤샘 작업이 ○○○로 되어 버렸다.
-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우리 집에는,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면서 순 ○○○○야.
- 액체가 다 빠진 뒤에 바닥에 남은 물건. 한약을 짜고 난 ○○○를 거름으로 쓰면 식물이 잘 자란다.
-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뒤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 자신이 무능한 남편이라는 ○○○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을, 또는 그런 상태. 단둘이 남게 되자 잠시 동안 ○○이 흘렀다.
-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런 말. 그의 ○○은 모두 거짓이었다.
- 더할 나위 없이 후회스러운. 짧은 시절을 남비한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다.
-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 본래는 행궁이었으나 선조 26년에 의주에서 환도한 후 보수하여 궁궐로 삼았다.
- 변형하거나 변한 것의 근본이 되는 자. 그 작품은 영화화되면서 ○○에는 없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별절게 보이는 현상.
-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이 만나는 점. ○○○이 셋 이상인 도형에는 삼각형도 포함된다.

세로열쇠

-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얼른. ○○○○ 저녁을 먹고 자리에 들었다.
- 인기척을 내거나 목적을 기다리거나 하기 위하여 일부터 하는 기침. 그는 ○○○을 두어 번 하고는 방문을 열었다.
- 조선시대 정음현감, 진도군수,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신. 시호는 충무. 거북선을 제작했다.
- 1~2세 무렵부터 나타나는 유아 정신병.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 발을 옮겨서 걷는 동작. ○○○이 빠르다.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
-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친구에게 떠밀려 ○○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 제왕의 천.
-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 열려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의 넋을 데리러 온다는 심부름꾼.
- 한국의 대표적인 연. 네모반듯한 종이의 한 귀퉁이를 접어서 머리 쪽이 되게 하고 'ㄱ' 자 모양의 발을 붙이고 공지를 달고 가운데는 구멍을 내어, 세로 두 줄의 발이 줄과 가로 활별이줄을 잡았다.
- 길가의 한대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시장 골목 양옆으로 ○○○들이 진을 치고 있다.

<993회 정답>

눈	썰	미	아	이	스	크	림
곰	날	파	칸				
	대	어	트	들	레	리	
도	깨	구	레	내	꽃	이	
개	언	니	비	초	크		
비	거	덕	공	고	적	삼	
빈	말	트	집	교	작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간별 주간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株)
- ▶발행인 조강래
- ▶편집인 조강래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푸른방송 케이블TV는 채널, 가격은 그대로! 장비 없이 즐기는 고품질 HD방송!

푸른방송 HD케이블TV + 인터넷

월 11,500 원

(부가세 포함, 현대백화점 제휴카드 월 1만원 이상 결제시)

푸른방송 신규 고객 1개월 무료

8,800원

푸른방송 가족 소개 시 111원으로

신규 고객 1개월 무료

8,800원

일시정액 5천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할인

일시정액 10천원 이상 결제 시

4천원 할인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TV · 아날로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 전화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서비스 가능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달성군

함께 하는 즐거움

온라인과 결합주는 씨름싸가족오락파브이

CMC TV

디지털: 57
아날로그: 37-1

CMCfamily

1588-0669 www.cmctv.co.kr